

‘노마스크’ 광주 콜센터 코로나19 수퍼 전파 ‘현실로’

광주 보험사 콜센터 발(發) 수퍼 전파가 결국 현실화됐다.

특정 보험사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콜센터 누적확진자는 보름만에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사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이 견집을 수 없는 확산세를 불러왔다.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보험사 콜센터 사무실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사무실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와 특장 대응 논란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광주 남구에 사는 A씨와 북구에 사는 B씨 등 3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이들은 광주 2134~2063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첫 확진자 이후 보름 만에 누적 100명 훌쩍 넘겨

종사자 86명, 가족 12명, 미화 2명, 지인 등 9명

라이나 직원 10명 중 1명...다른 기관도 n차 감염

이날 신규 확진자 중 A씨 등 28명은 광주 도시공사 사옥 내 빗고올고객센터에 입주해 있는 라이나생명 종사자들이고, 광주 2140번째 확진자인 B씨는 인천 서구 409번 접촉자다.

나머지 1명은 라이나생명 일부 직원들과 빗고올고객센터 3층을 나눠 사용해오던 한국장학재단 광주상담센터 직원이다.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직원이 확진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건물 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로써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난 달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5일 만에 109명으로 늘게 됐다.

라이나생명 등 콜센터 종사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가족 12명, 미화요원 2명, 지인 등 9명도 바이러스에 n차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주변인을 중심으로 3290여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40여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어서 추가 확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접촉

자가 3300여 명에 달한 이번 콜센터 발 수퍼전파는 상당수 직원들이 노마스크 상태로 근무해 예견된 집단감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쏟아진 4층 콜센터에서는 직원 절반 이상이 마

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진행중이다.

집단 감염 발생 전 일각에서 건물 내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있었고, 라이나생명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장학재단 콜센터에서도 불안해 휩싸인 일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점에 비춰볼 때 초기 방역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감염원보다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와 다행히 방역망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감염원 확인을 위한 심층역학조사와 함께 지하식당, 콜센터 사무실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방역작업하는 보건소 관계자

울산 북구 한 사우나를 다녀온 7명이 코로나 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은 8일 오후 해당 사우나 1층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땅에 버려진 과자 주워먹어”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내 ‘갑질’

노조 자체조사 “퇴사자 6명·정신과 진단 받기도”

“땅에 버려진 과자 주워먹어”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했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출근 투쟁에 나섰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 결과 수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며 “이날부터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전남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미래재단 내 진상조사는 지난 26

일 마무리 됐으며 조사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2명의 행위자에 의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진행됐음이 확인됐고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이라는 계획만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 자체 조사에서도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억압적 노동환경을 부과했다”며 “피해자 1인은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노조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청소년미래재단 노조 제공)

이다”고 주장했다.

김민정기자

광주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 성범죄 많아...특별대책 필요

범죄신고 높은 장소...노상·유흥업소·아파트

광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흥·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2019년 지역 성폭력범죄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고소·고발·112신고 등으로 접수, 처리된 관련 범죄는 총 3980건이다. 이 중 강제추행이 42.1%로 가장 많

았으며 강간 8%,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5.5%, 준강간 4.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7%, 강간미수 2% 순이다.

광주지역 95개 행정동별로는 유흥·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여성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소가 밀

집해 있는 서구 A동의 경우 2015년 62건에서 2016년 67건, 2017년 79건, 2018년 81건, 2019년 82건 등 총 371건으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북구 B동이 차지했으며 2015년 31건, 2016년 18건, 2017년 38건, 2018년 29건, 2019년 27건 등 5년간 총 143건이다.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는 동구 C동과 광산구 D동의 각각 138건, 135건이 접수됐다. 최윤희기자

다세대공동주택에 불지른 50대 징역 2년 실형

새벽 시간 다세대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 한 빌라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시간 자신의 집 앞에 성경책과 음식물 등

을 쌓은 뒤 담요를 덮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A씨의 거주지와 옆집 외벽으로 옮겨 붙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뻔 했다. 해당 빌라는 A씨를 비롯해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곧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 천장 마감재 등이 불에 타 38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빌라 복도에서 불을 질러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저를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사유를 설명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